

## 동학·천도교 사회운동에 관한 사회윤리적 평가와 미래적 과제\*

- 사회변혁 및 사회통합 이념 모색을 중심으로 -

남태욱(서울신학대학교)

### I. 서론

### II. 동학·천도교의 사회운동

1. 갑오동학혁명(1894)
2. 3·1독립운동(1919)
3. 신문화운동(1919-1945)
4. 청우당의 통일운동(1945-1949)

### III. 동학·천도교의 사회윤리 이념

1. 시천주의 인간(신인간)
2.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회윤리
3. 동귀일체의 사회와 후천개벽의 역사

### IV. 사회 윤리적 평가 및 미래적 과제

### V. 결론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2-A00315).

---

• ABSTRACT •

---

A Study of Social Ethical Evaluation and Its Future Tasks on the Social Movement of Donghak and Chondogyo: with a focus on searching for the ideology of social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Nam, Tae-Wook

I assert that our society requests a social ideology which can resolve so many social conflicts and fulfill social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prove adequacy of ideology which was found in Donghak · Chondogyo's social movements. And after that I can be recognize it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also I can be find out its future tasks of as an ideology for social change and configuration. Because Donghak · Chondogyo's social movements were given much weight absolutely in our modern time. So we can't deny the fact that the Donghak revolution and samil independence movement, new cultural movement etc. were contributed to modernize our society totally. I insist on that Donghak · Chondogyo's religious objectives that is, podeokcheonha(布德天下), boguganmin(輔國安民), gwangjechangsaeng(廣濟蒼生) etc. can be an alternative plan that change and unify wholly human being and society, nature and nation, culture and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it can be a universal ideology that have to seek for social justice. In this research I will prove that Donghak · Chondogyo's ideology for social change and integration is an universal ideology for just life of human beings. For proving it, first, I will try to generalize Donghak · Chondogyo's social movement historically. Second, I will evaluate it by the viewpoint of social ethics. Third, I will examine and limit its concept. Fourth, I will suggest the future tasks of Donghak · Chondogyo's social ideology.

**Key words:** Donghak · Chondogyo, Social Conflicts, Social Transformation & Integration, Social Movement & Ideology.

## I. 서론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전면적인 국가개조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구조적 불의(injustice)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여망이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의 속에는 내재된 불만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사회에 대하여 정수복은 한국인의 근본적 문화적 문법 중 ‘갈등회피주의’라고 정의한다.<sup>1)</sup> 지난 5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 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정부효과성 지수, 지니계수 변수로 측정한 사회갈등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0.72로 터키(1.27)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sup>2)</sup> 갈등은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며 급기야 폭력과 전쟁과 같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sup>3)</sup> 요컨대, 우리 사회는 근대적 이념과

- 
- 1)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낮설게 보기』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148-57. 갈등회피는 조화의 지향이라는 적극적인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대입적 상황이 주는 심리적 불안감을 잘 참지 못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징과 관련되어 있으며 감정우선주의와 유교의 계급주의적 윤리의 영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는 선과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한국사회는 공적 갈등을 갈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들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갈등의 사사화(私事化) 기제를 발전시켰다.
- 2) 『연합뉴스』, 2014년 5월 6일. 덴마크가 0.25로 가장 낮았고 독일 0.35, 영국·일본 0.41, 프랑스 0.43, 미국 0.47, 이탈리아 0.58 등이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지역 간, 노사 간, 이념 간, 공공정책 목표간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며 갈등의 목표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됐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0.44)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에 의한 문명사적 위기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 그 연장선상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과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 갈등, 신자유주의에 인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갈등,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 반생명적 생태학적 위기로 인식되는 인간과 자연의 갈등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갈등은 관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사회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현존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변혁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이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 근대사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친 동학·천도교의 사회운동에 나타난 사회이념의 타당성을 논증하여 우리사회의 변혁과 통합이념으로서의 가능성, 한계와 미래적 과제를 인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학·천도교의 사회운동은 우리 근대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과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오동학혁명, 3·1독립운동, 신문화운동 등은 우리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을 폄훼할 수 없다. 필자는 동학·천도교의 창도 이념, 포덕천하(布德天下),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등은 인간과 인간,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생명), 인종과 민족, 문화와 문명을 차별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전일적(全一的)으로 통합

- 3) 다음의 조사들은 우리사회의 갈등 양상을 통계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세계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인맥(연고주의)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리며 게임의 룰이 실종된 파벌공화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득권층이 연고주의의 병폐를 조장했으며 청년 10명 중 9명이 대한민국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2014년 5월 2일.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37만 9천 원에 비해 남한은 2천 869만 5천 원으로 약 1/21로 조사되었으며, 북한 국민총소득(GNI)는 33조 8천억 원에 비해 남한은 1천 441조 1천억 원으로 1/42.6로 국가 간 경제 격차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 갈등을 수치로 확인해준 것이다. 경제적 격차와 함께 평화지수 역시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4년 6월 27일. ‘국제 비영리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가 조사한 세계평화지수(GPI)에 의하면 한국의 평화지수(1.849)는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한 52위로 나타났고, 북한은 최하위 153위(3.0)으로 조사되었다. 1위는 아이슬란드(1.189)이다. 『연합뉴스』, 2014년 6월 18일.

할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인류가 추구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는 보편적인 이념으로서의 가능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학 · 천도교 사회운동을 역사적으로 개괄한 것이다. 둘째, 동학 · 천도교 사회운동을 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셋째, 동학 · 천도교 사회운동을 추동한 사회이념을 규명 및 한정하고자 한다. 넷째, 동학 · 천도교 사회이념의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동학 · 천도교의 사회운동

### 1. 갑오동학혁명(1894)

갑오동학혁명<sup>4)</sup>은 당시 고질화된 총체적인 사회 구조적 부조리와 불의

- 4) 동학은 경신년 4월 5일(포덕1년, 서기 1860년, 단기 4193년, 조선조 철종 11년)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되었다. 윤노빈, 『*신생哲學*』(서울: 학민사, 2003), 334. 갑오동학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동학의 등장은 전통 유학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관리들의 학정과 수탈이 심해지는 한편, 천주교가 침투하고 서구 열강의 침입이 거세어지는 등 내외적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지던 19세기 후반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국철학 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 사상, 역사, 논쟁의 세계로 초대*』(서울: 예문서원, 1995), 246. 이 당시 사회상은 동경대전(東經大全)의 포덕문(布德文)과 논학문(論學文)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전봉준에 의한 1차 고부 봉기 시점(1894)의 사회적 · 정치적 상황은 동학이 창도될 당시(1860)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것이었다. 고부군수 조병갑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지방 관리들의 탐학과 수탈은 농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고부농민들에 의해 갑오동학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윤노빈은 동학의 창도에 대하여 “인내천 사상은 극동 아세아에 엄습한 당시의 세계사적 긴장의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학학회 편저, 『*동학, 운동인가 혁명인가*』(서울: 신서원, 2002), 13. 극에 달한 사회적 부패와 혼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국가적 · 문명사적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의식 속에서 고질적 민족적 수난의 소용돌이로부터 어리석은(愚) 인민을 구제(濟)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색하였으며, 이 사색의 결과로 인내천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위의 글, 335. 즉 우리는 우리나라, 즉 동국(東國)을 위한 학, 동학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864년 경상감사 서헌순이 최제우를 심문하면서 동학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자, 그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국에서 취했다는 뜻이다.”라고 답했다. 『*고종실록*』, 1년(1864) 2월 29일. 서세동점의 위기를 오도르써 대응하자는 최제우의

에 저항한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해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폐해가 있으니, 그 하나는 적서 간의 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반상 간의 차별이다. 적서를 차별하는 것은 가정이 망하는 근원이고, 반상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근본이다.<sup>5)</sup>고 하여 유교적 차별적 사회를 비판했다. 의암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의 우리 동양은 군은 민을 마치 노예같이 보며, 민은 군을 범처럼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나운 정치의 압제라고 할 수 있다.<sup>6)</sup>고 하여 군민 간의 차별을 비판하면서 민을 경시하는 정치 자체를 근본 문제로 지적하였다.<sup>7)</sup> 즉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과 백산격문(白山檄文), 그리고 폐정개혁안에서 나타나듯이 동학농민봉기의 핵심은 ‘정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정의(justice)를 위한 사회변혁운동과 주체적 민족운동으로서 반봉건적 사회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봉건적 정치 구조인 전제 왕권체제의 수용과 인류에 근거한 군신 관계나 충효쌍전(忠孝雙全)의 표방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갑오동학혁명은 군주

‘동도주의’는 동도가 중화 문물을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는 조선적 문명으로 어떤 문명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동학은 수양을 강조하는 종교로 창도되었다(포덕천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국안민·광제창생하여 후천개벽과 지상천국 건설을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혹세무민’하는 사교(邪教)·좌도(左道)라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학 그 자체가 봉건적·신분제적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의식과 외세의 위협에 대한 저항의식의 산물이었으며 동학 지도부가 사회 문제의 해결에 눈을 돌린다면 반봉건적인 투쟁에 가담하거나 민족적 항쟁에 투신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조병환, “태평천국의 역사적 의미,” 태평천국과 중국의 농민운동(서울: 인간사, 1981), 20-7. 김경재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종교적 영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사회적 태풍과 같은 사건으로 해석했다.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서 ‘종교성’의 망각은 ‘태풍의 눈’을 제거해 버리는 일과 같다. 김경재,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종교적 영향”, 『동학연구』 제9·10집(2001. 9): 33. 이는 갑오동학혁명에 있어서 동학의 종교성이 그 중심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5) 我國之內，有兩大弊風，一則，嫡庶之別，次則，班常之別，嫡庶之別，亡家之本，班常之別，亡國之本，此是吾國內，痼疾也。“布德”，「海月神師 說法」.
- 6) 今我東洋則，不然，君視民而如奴隸，民視君而虎威，此則尙政之壓制也。‘創世原因章’，「明理傳」，「義菴聖師 法說」，『天道教 經典』.
- 7) 김정호, 『도전과 응전의 정치사상: 19세기 동아시아 3국의 개혁, 개방 사상』(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5), 223-4.

제의 존립을 전제로 한 사회운동이었다.<sup>8)</sup>

갑오동학혁명은 신분제 사회에서 일어난 인권운동이었다. 1894년 당시 조선 사회는 반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불평등한 봉건사회였다. 동학의 종지가 시천주와 인시천, 사인여천과 같은 평등사상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에서 동학의 인권 평등사상은 혁명적 가치요, 복음이었던 것이다. 즉 인간 존엄과 평등이라는 종교적 이념이 잠자고 있었던 민초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한 것이다. 동학의 인간론은 초월적인 존재인 한울님을 근거로 하지만 초월자에 의존하거나 종속된 인간이 아니라, 이를 창조적, 혁명적으로 극복한 인본주의적 인간론이다. 이에 대하여 윤노빈은 완전한 의미의 인간 존엄성을 고취하는 인내천 사상이 혁명적인 것은 인간이 인간을 천대하던 과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며, 인내천 사상은 지난날의 온갖 위선적 인본주의, 종군적 박애주의, 편애적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타 넘었다. 그리고 “사람이 바로 한울이다.”라는 한마디의 웅변이 가짜 인본주의의 온갖 교언들을 침묵시키는 것이다.<sup>9)</sup>고 평가했다. 요컨대, 갑오동학혁명을 추동했던 핵심 원리는 시천주의 인간, 즉 존엄한 인간에 대한 발견이다.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시천주 신앙’에 기초하여 단시일 안에, 전체 민중에게 사회적 의식화 교육을 단행한 셈이며, 수천 년 동안 민중을 잃어맨 사회 신분제도나 민중 지배, 인간 수탈의 정치가 허구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확고하게 동학농민군들에게 심어주었다.<sup>10)</sup>

8)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동학 · 천도교편』 (서울: 혜안, 1996), 113.

9) 윤노빈, 앞의 글, 335.

10) 김경재, 앞의 글, 39.

### 2.3·1 독립운동(1919)

천도교는 3·1 독립운동의 준비와 초기 단계에서 각계의 독립운동 움직임 하나를 결집하고 운동의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전국적 조직을 이용해 시위를 조직하고 운동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독립 소요의 중핵이었다.<sup>11)</sup> 천도교가 3·1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천도교의 교세 신장<sup>12)</sup>과 이에 따른 재정 확보<sup>13)</sup>, 그리고 근대인·문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력양성운동<sup>14)</sup>을 꼽을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일본 동경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서'와 '고종황제의 사망',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등이 작용하였다.

이 운동으로 민족대표를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투옥당하고 이름 없는 많은 애국지사가 학살당하였다. 특히, 천도교는 3·1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의암을 비롯한 중요 간부 대부분이 투옥되었다. 뿐만 아니라,

- 
- 11) 朝鮮總督府警務局, 『天道教概論』, 10. 1919년(포덕 60년) 1월에 의암 손병희 자택에서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이 여러 차례 모여서 회합한 끝에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에 임하는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세 가지 운동원칙을 확정하였다.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서울: 보성사, 1967), 325-6.
- 12) 1910년 대 천도교의 교세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평북 선천군의 경우 1912년 무렵 절반 이상의 인구가 천교도를 믿었으며, 함남 함흥군은 1915년 기독교인이 584명, 시천교인이 679명인 것에 비해 천도교인은 3,414명에 달했고, 전국적으로는 300만을 헤아릴 정도였다. 「지방교황」, 『천도교회월보』, 3월호(1912); 『매일신보』, 1915년 8월 10일;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상권 (서울: 서문당, 1973), 126. 이는 3·1운동 당시 기독교인 30여만 명에 비해 10배 이상의 교세에 해당되는 그 당시로서는 고금의 종교계에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성장이었다.
- 13) 천도교가 3·1운동에 많은 액수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물질적 혈맥인 성미제 때문이었다. 이는 교세의 신장에 기인한 것이었다. 1918년 봄 중앙교당 신축 기금 명목으로 거둔 돈만 30여만 원이었고 천도교중앙총부로 매달 5,000-6,000원의 성미액이 조달되었으며 3·1운동 당시 천도교중앙총부는 부동산 가옥 40여 채, 동산 현금 13-14만을 가지고 있었다.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서울: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83-4, 831.
- 14) 천도교는 민중들에게 “문명시대에 신학문과 도덕에 힘쓰기 위해서는 천도교에 입교하라”고 선교했다. 홍순덕, 「포덕에 대하여」, 『천도교회월보』, 12월호 (1915).

일본군에 의해 중앙총부가 포위 점거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여러 지방교구가 폐쇄되는 등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3·1독립운동은 청사에 빛나는 거족적 독립항쟁이었다. 천도교라는 한 종단이 그 주축이 되었지만, 민족의 이름으로 교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열되자 해외에서 망명 지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러한 독립 열기가 한데 모아져 그 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이렇듯 송고한 3·1 독립정신은 훗날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건국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 3. 신문화운동(1919-1945)

3·1독립운동 이후 민족의 문명의식 고취와 새로운 문명, 문화를 통한 민족정신 함양을 위하여 천도교는 거국적인 신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인내천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청년당의 신문화운동은 인간의 사상을 개혁하는 후천신문화운동이며 백성을 깨우치는 개화운동이었다.<sup>15)</sup> 이는 주로 3·1독립운동 이후에 전개한 것으로, 청년운동<sup>16)</sup>, 출판문화운

15)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天道敎靑年會八十年史』(서울: 글나무, 2000), 221.

16) 천도교가 근대적 주체로 가장 먼저 주목한 대상은 청년이었다. 이것이 1919년 9월 2일 발족된 민족의 신문화 창조·계발과 새로운 사상·교리의 연구 보급을 목적으로 청년교인들이 중심이 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天道敎靑年敎理講研部)이다. 「교리강연부의 第一例會觀」,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의 설립」, 「강연부취지서」, 『천도교회 월보』, 10월호(1919). 이는 정도준(부장), 김옥빈, 박달성, 이두성(이상 간무원), 박래홍, 손재기, 방정환, 이돈화, 황경주, 최혁, 박용준(이상 간의원) 등의 청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1920년 4월 25일 천도교청년회로 확대·개편된다. 천도교청년회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언론활동이었다. 1920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잡지인 월간 『개벽』을 창간하는 한편,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돈화, 「경신년을 보내면서」, 『개벽』 12월호(1920). 1937년 중일전쟁과 함께 일제의 강압으로 그 후 천도교의 청년조직은 지하로 잠적하게 된다

동<sup>17)</sup>, 농민운동은 천도교청년회 지도자들이 볼 때 조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는 농촌문제였다. 당시 조선의 인구의 80% 정도가 농민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개조야말로 인내천적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천도교의 전적운동(全的運動)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sup>18)</sup> 어린이운동, 이는 수운 최재우의 시천주(侍天主), 해월 최시형의 인즉천(人卽天), 사인여천(事人如天), 의암 손병희의 인내천(人乃天)으로 승화되어 천도교 소년운동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sup>19)</sup> 여성운동,<sup>20)</sup> 1910

17) 천도교는 3·1독립운동 이후 『개벽』지 발간을 비롯한 출판·문화 활동에 치중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출판문화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개벽』지는 1920년 6월에 창간하여 1926년 8월까지 통권 72호를 내고 일제의 강압으로 폐간 당한 잡지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잡지로서 『개벽』은 1920년대의 문화·사상계를 대표하는 잡지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개벽』지의 발간정신은 그 제호가 말하듯 천도교의 개벽사상을 의미한 것이다. 『개벽』이란 표제는 천도교경전에 있는 ‘개벽시국초일(開闢時國初日)’ 이니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 개벽(開闢) 아닐런가라는 문구에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이 개벽이라는 표제는 한마디로 천도교의 역사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후에 청년회를 계승한 ‘천도교청년당’이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신문화운동의 근간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앞의 글, 104.

18) 위의 글, 272. 천도교의 농민운동은 주로 1925년 10월 29일 설립한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를 통해서 전개되었다. 조선농민사는 처음에 사우제(社友制)로 조직하였다가 1928년 2월 14일 조직을 개편하여 중앙에 농민사 본부를 두고 각 군에 군농민사와 그 밑에 이(里洞)농민사를 두는 계통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각 지방 농민사는 1928년 현재 23개였던 것이 1933년에는 150여 개로 증가하였고, 사원 또한 20만 명에 달하였다. 조선농민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잡지로서 『조선농민』(통권30호), 『농민』(통권42호) 등의 월간잡지를 보급하는 한편 『대중독본』, 『대중산술』, 『비료제조법』, 『양잠법』 등 농촌 계몽문고본을 보급하여 농업의 근대화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잡지와 농촌문고본의 보급은 다시 문화의 불모지였던 한국 농촌사회에 농민문화 보급의 선구적 계몽역할을 하게 된다.

19) 『어린이』지는 천도교의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자유를 이념으로 하여 어린이를 민족 장래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어린이에 대한 재래의 비인간적 폐습을 혁신시키는 동시에, 어린이 운동 및 이를 보다 정서적으로 융화 발전시키는 아동문학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천도교소년회의 창립 이념은 해월 최시형의 내수도 문에서 ‘어린이아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일님을 치는 것’이라고 하였고, 대인접물(待人接物)법설에서는 “도가의 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

년대 천도교가 근대인 · 문명인 양성을 위해 주목한 또 다른 대상은 여성이었다. 천도교의 인내천 종지는 시천주 사상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반상(班常), 노소(老少), 남녀(男女)의 평등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다. 여성계몽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남녀동등, 즉 평등의 실현에 있음을 강조한다.<sup>21)</sup> 신교육운동은 인내천주의에 입각한 천도교는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최후 종교’로서 ‘물심(物心) 양자(兩者)의 병행개벽’, 즉 정신적 수양과 물질적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즉 이는 종교사상일 뿐만 아니라,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통한 지상천국 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사상이다. 이돈화가 1920년대 초반 주장한 인내천주의는 유난히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족개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를 도덕성에 두었다.<sup>22)</sup> 다시 말해서, 동학 ·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은 각 계층을 망라한 전 방위적인 문화운동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일제의 문화통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3 · 1독립운동을 추진했던 비폭력주의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적으로 천도교의 보국안민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 4. 청우당의 통일운동(1945-1949)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 공간을 맞은 우리나라는 각종 이념과 주의에

는 가르침에 근거한다. 위의 글, 302.

20) 천도교의 여성단체는 전국에 지방조직을 두고 주로 ‘생활혁신’과 ‘신여성상(新女性像)’의 정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 한편, 『부인』과 『신여성』이라는 월간 여성잡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인』, 『신여성』지는 첫째, 생활개선, 둘째, 가정의 낙원화, 셋째, 도덕과 미풍의 조성, 넷째, 자녀의 교양, 다섯째, 고상한 취미 고조 등에 힘쓰면서 낙후한 한국 여성의 교양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 및 의식계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앞의 글, 237.

21) 용산교구 어떤 부인, 「우리의 가정」, 『천도교회월보』, 10월호 (1917).

22) 김정인, 앞의 글, 132-6.

의한 정당과 정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천도교에서는 1945년 8·15해방 다음 달에 천도교 청우당(靑友堂)을 부활시킨다. 이 때 부활된 청우당은 단지 종교적 활동만이 아니라 천도교의 이념에 따라 ‘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활동에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sup>23)</sup> 이는 천도교 교리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보국’은 민족해방을 의미하며<sup>24)</sup> 보국은 민족주의의 계단으로서 각각 그 민족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25)</sup> 그리고 ‘안민’은 바로 계급투쟁을 의미한다.<sup>26)</sup>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우당은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였다.<sup>27)</sup> 이후 청우당은 당의 정책 설정을 위하여 천도교의 교리와 역사 및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정치이념을 수립한다.<sup>28)</sup> 이러한 정책의 수립에 따라 천도교 청우당은 1945년 10월 31일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민족통일기관 결성 촉진’을 결의하였고<sup>29)</sup>, 이어서 12월 15일에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의 각각 대표 100명씩을 연합하여 조선독립촉성을 위한 연합발기대회를 열고, 20일에는 조선독립의 완성을 촉진하자는 의미로 6개 종단을 모아 조선독립촉성종교단체연합회를 조직하였다.<sup>30)</sup>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sup>31)</sup>,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이후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를 찬성하자, 1946년 1월 16일 조선공산당을 비판

23) 金種範, 『解放前後의 朝鮮眞想』 第2輯 (三中堂, 1945), 128-30.

24) 「天道敎政治理念」, 『東學』, 東學宣揚會 刊 (1990), 301.

25) 이돈화, 『교정쌍정』 (평양천도교종학원, 1947. 10. 5), 정치계단.

26) 「天道敎政治理念」, 앞의 글, 301.

27) 위의 글, 303.

28) 위의 글, 300-301.

29) 『매일신보』, 1945년 11월 6일.

30)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

31) 『중앙신문』, 1945년 12월 30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2)</sup> 즉 청우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독립과 해방에 의거한 정치활동을 펴나갔다. 이후 좌·우 분열이 일어나게 되자, 1946년 2월 9일 천도교 청우당은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정치적 기본노선을 이탈한 편좌(編左), 편우(編右)의 모든 경향을 배격하고 민족적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946년 3월 중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때에 즈음하여, 미·소 양국의 군대 철수와 내정 간섭의 배제를 미군정 당국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천도교 청우당은 ‘남북통일, 좌우합작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반대’라는 기본 노선을 견지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sup>33)</sup>

1947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에 즈음하여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의 인사들이 찬탁운동을 전개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기도하자, 청우당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의 정책이 미군정과 한민당 등의 우익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여 청우당의 주요 간부들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후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의 수립을 이룩하고자 했던 천도교 청우당의 염원은 미군정이 단독정부 수립을 희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8월 10일 “북로당과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의 지령을 받아 천도교 내에서 남조선 천도교의 중심 세력을 분리시키고 북한 청우당 세력을 부각시키며, 파괴·암살을 위한 지하당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당원 3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리고 초지일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남조선 천도교

32) 『서울신문』, 1946년 1월 19일.

33)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앞의 글, 681.

청우당은 1949년 12월 26일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정당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강제로 정리·해체되고 말았다.<sup>34)</sup> 청우당의 통일운동은 분단과 함께 좌절되었지만 보국안민의 이념에 충실하여 해방 공간에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였다.

### III. 동학·천도교의 사회윤리 이념

#### 1. 시천주의 인간(신인간)

수운에게서 인간은 “사람이 한울님을 모신다”(侍天主)와 같이 한울님, 즉 초월자와의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은 한울님을 모셔야 할 존재이다. 수운은 모심(侍)에 대하여 삼중적 의미로 해석한다.<sup>35)</sup> 수운의 시천주는 해월 최시형의 인즉천(人卽天)의 양천(養天)사상과 의암 손병희의 체천(體天) 곧 인내천(人乃天)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시천주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중층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이와 같이 수운의 시천주사상은 주체적인 인간을 포함하여 한울님과 자연을 통섭하는 세계관이고, 우

34) 『충청매일』, 1949년 12월 27일.

35) 첫째, 내유신령(內有神靈). 둘째, 외유기화(外有氣化). 셋째, 일세지인 각지불이(一世之人 各知不移)이다. 즉 모심(侍)은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신묘한 영감을 느끼고, 몸으로는 지기에 화합하여 온 세상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마음에 오래 간직한다는 의미이다.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한울님이 인간에게 관계하는 모습, 즉 인간에게 ‘侍’해 있는 존재론적 실상을 의미한다면, 각지불이는 인간의 안팎에서 신령과 기화로 작용하는 한울님의 실상을 잘 알아서 모든 인간들이 올바른 경천을 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용휘, “東學 神觀의 再檢討”, 『동학학보』 제9권 1호 (2005. 6): 339-340.

36) 이를 가리켜 김지하는 시천 안에 양천·체천이 들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양천 안에도 시천·체천이 있으며 체천 안에도 시천·양천이 있고 씨앗 가운데 이미 성장과 열매가, 성장 가운데 씨와 열매가, 열매 가운데 씨앗과 성장이 다 있는 것과 같다. 김지하, 『동학이야기』 (서울: 숲 출판사, 1994), 16.

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천주는 인간의 공경과 믿음의 대상인 위대한 한울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점에서 동학의 신학을 구성하는 요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대한 한울님을 내면에 모시고 있는 주체를 지시하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동학의 인간론을 구성하는 요체인 것이다.<sup>37)</sup>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수운이 통렬하게 인식했던 각자위심(各自爲心), 즉 인간의 삶 속에서 표출되는 ‘이기성’이다. 그러나 동학은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표출인 ‘이기성’과 ‘집단지기주의’와 같은 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위심의 문제는 자신이 한울님을 모셔야 하고 모신 존재라는 자각이 없거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로써 시천주의 의미를 깨달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8)</sup>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수운은 한울님을 ‘불택선악(不擇善惡)’의 존재로 인식하여 선악의 문제는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신이 그것을 임의로 주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sup>39)</sup> 이에 대하여 김용휘는 “불택선악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인간이 삶과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실천과 역사의 창조는 신의 심판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해석한다.<sup>40)</sup> 이는 또한 13자의 주문(呪文)<sup>41)</sup> 속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37) 최종성, “동학의 신학과 인간학”, 『宗教研究』 第44輯 (2006년 가을): 141.

38) 曰天心卽人心則 何有善惡也 曰命其人 貴賤之殊 定其人 苦樂之理 然而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故 與天地合 德 小人之德 氣不正而心有移 故 與天地違其命 此非盛衰之理耶

39) 曰反道而歸者何也 曰斯人者不足舉論也 曰胡不舉論也 曰敬而遠之 曰前何心而後何心也 曰草上之風也 曰然則 何以降靈也 曰不擇善惡也 曰無害無德耶 曰堯舜之世 民皆爲堯舜 斯世之運 與世同歸 有害有德 在於天主 不在於我也 一一究心則 害及其身 未詳知之 然而斯人享福 不可使聞於他人 非君之所問也 非我之所關也, 「論學文」.

40)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서울: 책세상, 2007), 92.

41)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오문환은 이에 대하여 시정지(侍定知)라는 세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영적 주체의 발건(侍), 자연성의 내재화

시천주의 인간은 한울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존엄성을 확보한다. 즉 시천주의 인간은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 주체성을 지닌 인간이다. 시천주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도덕성에 있다. 시천주의 인간은 한울님을 모신 존엄한 존재임과 동시에 수심정기의 실천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를 회복하여 도인, 성인, 즉 신인간에 이르게 되는 자유인이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가 확보되지 못하면 더 이상 인간은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천주의 진리는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된다. 동시에 시천주의 이념은 평등의 기반이 된다. 해월에 의해서 재해석된 사인여천의 실천과 가르침은 「내수도문」(內修道文)에 나타난다.<sup>42)</sup> 이외에도 해

(定), 새로운 인격의 탄생(知)에 이르는 동학의 인간을 신인간(新人間)으로 정의한다. 시정지는 사람이 성인으로 되는 과정철학이자 실천수행이다... 그 이치가 명확하고 그 수행이 정확하다면 시정지를 통하여 사람은 신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수운은 신인간의 탄생을 통해서만 동양의 전통이 무너지고 서양의 근대성이 침략하는 19세기 말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인간의 특징으로 는 첫째, 신인간은 주체적 영적 존재이다. 둘째, 신인간은 우주적 공인(公人)이다. 셋째, 신인간은 성인이다. 이는 수운 당시 조선사회의 폐쇄한 인간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여 인간 존재를 존엄한 주체적 존재로 고양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시대적 비극 속에 함몰되어 버린 인간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동양적 사고에서 인간을 신령적 존재, 곧 영적 존재로 인식한 것은 동양의 지배적인 인본주의 윤리 속에서 보기 드문 발상이다. 그리고 영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특별하거나 제한된 인간군이 아닌 보편적인 존재라는 인식 또한 반상의 구별이 뚜렷한 계급사회에서 선비(士)만이 도를 실천하여 군자와 성인에 이를 수 있다는 차별적 인간관에 대한 도전이다. 시정지에 근거한 사람은 누구나 군자와 성인에 이를 수 있다는 평등하며 보편적 인간 이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간이 곧 신인간이다. 오문환, “시천주 주문을 통해서 본 수운의 인간관”, 오문환 편저, 『한국의 사상가 10인 수운 최재우』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 10 (서울: 예문서원, 2005), 152-3.

- 42) “부모님께 효를 극진히 하오며, 남편을 극진히 공경하오며, 내 자식과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오며, 하인을 내 자식같이 여기며, ... 어린 자식 치지 말고 울리지 마옵소서.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오니, 천리를 모르고 일행 아이를 치면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니 부디 집안에 큰 소리를 내지 말고 화순하기만 힘쓰옵소서.” 海月神師法說 「內修道文」, 『天道教經典』.

월은 자신의 법설, 포덕과 부부화순을 통해서 반상의 차별적 사회구조와 여성의 성차별을 철폐를 주장했다. 해월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인(敬人)의 차원을 경물(敬物)로 까지 확장하여 시천주의 윤리를 확장했다. 문영석은 해월의 시천주 사상은 천부인권설의 한국적인 철학적 기초를 다져놓았으며 결국 상하귀천의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민족성원이 다 같이 사인여천의 인간관계가 되고 그 토대 위에 자유·민권의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sup>43)</sup>

## 2.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회윤리

한울님을 모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라면 수심정기는 인간 본성의 회복을 위한 시천주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학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행위)의 가르침이다. 윤석산에 의하면 수운이 경험한 19세기 조선의 사회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서세동점의 위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곧 각자위심(各自爲心)의 타락한 심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다.<sup>44)</sup>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타락한 인성인 각자위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수운은 역설했고 각자위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 모두 무궁한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한울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지심(敬畏之心)을 각자의 마음속에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각자위심에서 벗어난 한울님을 공경하는 경외지심을 회복하는 수행의 방법으로 수운은 ‘수심정기’를 제시한다.

이는 동학의 핵심적인 수행법으로써 유가의 가르침인 인간 본성의 인

43) 문영석, “해월 최시형의 사상연구: 신관인간관자연관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3호 (2002): 355.

44) 윤석산, “천도교의 수도법 수심정기에 관하여”, 『동학학보』 제7호 (2004. 6): 96.

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을 수운 자신이 다시 정한 것이다.<sup>45)</sup> 수심정기의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고 시천주의 진리를 깨달아 각자 한울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갖게 된다. 각자위심에 빠진 인간이 수심정기의 수련을 통해 무궁한 한울님과 더불어 무궁한 '나'를 자각함으로써 후천이라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열어가는 구체적인 수행법이다. 시천주의 인간은 지속적인 수심정기의 수련을 통해 완성된다. 동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은 인간론이 단지 존재론적이나 인식론적인 이론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수심정기의 수련을 통해 완성되는 실천적이며 역동적인 인간이다. 이는 불가의 돈오점수(頓悟漸修)와 기독교의 성화(sanctification)의 개념과 같이 자기 부정을 통해 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단지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성화에만 머무르는 것(守心)이 아니라, 이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운을 바르게 함(正氣)으로써 바른 실천을 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수심정기의 생활화는 성(聖)의 속화(俗化)가 아니라, 속의 성화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이를 더더욱 구체적인 실천양식으로 발전시킨 이가 바로 해월이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하였으며(事人如天), 모든 사물이 곧 한울님(物物天事事天)이라고 가르쳤다. 해월의 인시천(人是天),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철학을 구체화하는 십무천(+毋天)의 행위 규범은 수심정기의 구체적 실천이다.<sup>47)</sup> 이 열 가지 규범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누

45) 仁義禮智 先聖之所教 守(修)心正氣 惟我之更定, 「修德文」, 『東經大全』, 수심정기 하여내어 인의예지 지켜두고, 「道德歌」, 『龍潭遺詞』.

46) 오문환, 『사람이 하늘이다: 海月の 뜻과 사상』 (서울: 솔 출판사, 1996), 141.

47) 위의 글, 130-1.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毋欺天) 하늘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毋慢天) 하늘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毋傷天) 하늘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毋亂天) 하늘님을 일찍 주게 하지 말라(毋夭天) 하늘님을 더럽히지 말라(毋汚天) 하늘님을 주리게 하지 말라(毋餒天) 하늘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毋壞天) 하늘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毋壓傷天) 하늘님을 굴하게 하지 말라(毋屈天)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 강령이다. 하늘이라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대신 인간을 넣어도 무방하다. 동학에 의하면 ‘인간이 곧 하늘이므로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곧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뜻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지 사람과 사회의 성화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물에게까지 그 지평을 확장했다. 해월의 삼경(敬天, 敬人, 敬物)사상은 ‘대인접물(待人接物)’의 태도에 대하여 “성경신(誠敬信)으로 주를 삼아 포덕에 힘쓰라”<sup>48)</sup>고 제자들에게 주문한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수운은 경(敬)의 대상을 ‘한울님’과 ‘인간’으로 한정하였지만, 해월은 경천, 경인, 경물(以天食天)<sup>49)</sup>로까지 확장시켰다.<sup>50)</sup>

### 3. 동귀일체의 사회와 후천개벽의 역사

수운은 ‘산하의 큰 운수가 모두 이 도로 돌아오고(山河大運 盡歸此道)’, ‘모든 일이 한 몸으로 돌아온다(同歸一體)’고 하였다.<sup>51)</sup> 동귀일체란 모든 사람의 근본이 무형한 한울님을 깨닫고, 일체의 원리로 돌아가 한마음

48)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122.

49) 위의 글, 36. “대개 천지, 귀신, 조화라는 것은 유일한 지기로 생긴 것이며 만물이 또한 지기의 소사이니 이렇게 보면 하필 사람뿐이 천주를 시(侍)하였으랴. 천지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먹음은 곧 이천식천이니라. 그러나 제군은 일생을 무고히 행하지 말라. 이는 천주를 상함이니 대자대비하여 조화의 길에 순응하라.” 위의 글, 18. “접물은 우리도의 거룩한 교화이니 제군은 일초일목이라도 무고히 이를 해치말라...이천식천은 천지의 대법이라 물물이 또한 나의 동포이며 물물이 또한 한울의 표현이니 물을 공경함은 한울을 공경함이요 한울을 양하는 것이니 천지신명이 물과 더불어 추이하는지라. 제군은 물을 식함을 천을 식하는 줄로 알며 인(人)이 래(來)함을 천(天)이 래(來)하는 줄로 알라.”

50) 정영희, “동학의 인간평등사상 연구”, 『동학학보』 제7호 (2004. 6): 200.

51) “교훈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26. “한울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더냐.”; 오문환, 『동학의 정치철학: 도덕, 생명, 권력』(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3), 300. “동귀일체란 우주 만물이 한몸으로 돌아간다는 통일성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우주는 본래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한뜻으로 화합하자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이룬 사회와 세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무위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인위적으로나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이며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무위란 자연과 같은 개념이다.<sup>52)</sup> 이것이 곧 무위의 위이고 그것은 수평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화와 무위이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른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는 무형한 한울님의 이치 기운으로 화해 났고, 그 이치 기운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모두 한울님의 아들과 딸이며 한 동포, 한 형제, 한 생명체이다. 인간사회는 물론이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영체요, 하나의 생명체인 만큼 하늘(한울)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유기체적 통일을 이루는 평화적인 사회가 동귀일체의 사회이다.

오문환에 의하면 동학에서 통일은 둘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착각하는 마음을 해방시켜 원래의 하나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이다<sup>53)</sup>. 원래 동학의 진리는 지기일원론(至氣一元論)에 있다. 천주와 조화, 신령과 기화는 사실상 둘이 아닌 하나이다. 따라서 대립과 모순, 그리고 갈등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는 수운의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 해월의 물오동포(物吾同胞), 인오동포(人吾同胞), 의암의 위하고 위하는 마음(爲爲心)으로 나와 타자, 적과 동지의 구분을 없애고 본래 하나, 한울과 인간, 자연까지 모두를 평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역사는 동귀일체의 사회를 이루어 가는 과정, 즉 시천주를 토대로 하여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운의 최종 목적은 시천주 신앙으로 개벽된 인간들이 모여 지상천국의 이상

52) 최민자, 『동학사상과 신문명』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5), 341.

53) 오문환, 『다시개벽의 심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6), 238.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후천개벽의 사상은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써 통합을 이루어 가는 평화적인 역사철학이다.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이룩되어 가는 과정으로써의 역사를 말한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sup>54)</sup> 평화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역사철학이 필요하다. 서양의 기계론적인 역사철학은 오히려 세상의 분열과 갈등, 폭력과 전쟁만을 산출했다. 자유주의 역사철학은 역사적 가능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유연한 유토피아니즘(soft utopianism)으로 귀결시켰으며, 유물사관과 주체사관 역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결국 경직된 유토피아니즘(hard utopianism)에 함몰되었다. 결국 현실과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산출하여 전쟁과 폭력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양자를 화해시킬 새로운 제3의 역사인식과 철학이 필요하다.

#### IV. 사회 윤리적 평가 및 미래적 과제

윤리학에서 인간 혹은 자아는 항상 윤리의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윤리적 주체이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인간(homo ethicus)은 자유로우며 책임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시천주의 인

54) “단기적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와 통일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앞 세대들은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며 남북 간에 불신과 적대감을 키워 왔다. 우리 세대의 임무는 이러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 진정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러면 유능하고 참신한 우리의 후세들이 바람직한 통일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서두르며 '성수대교식' 통일 혹은 '삼풍백화점식' 통일을 이룬다면, 의사가 수술을 잘하였지만 환자는 결국 죽어 버리고 마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 Johan Galtung, 이재봉,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 『평화연구』 제5호 (1996. 1): 201-2.

간, 신인간은 윤리적 주체로서 자유로우며 책임적인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인간 본성에 근거한 소극적·부정적 입장과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인간 이해에 기초한 입장으로 대분할 수 있다. 전자는 윤리적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윤리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써 윤리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고 후자는 이상주의적 윤리에 경도되어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니즘으로 말미암아 이 역시 윤리적 감상주의로 인해 역사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양자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시천주를 통한 책임윤리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시천주의 인간은 한울님에 대한 내적 자각을 넘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책임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은 마치 부모와 같이 섬김<sup>55)</sup>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책임의 문제를 넘어 '섬김'의 윤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섬김의 윤리는 사회윤리가 추구하는 사회제도 혹은 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적 성화(聖化)' 혹은 '속의 성화'를 성취할 수 있다.<sup>56)</sup>

사회윤리는 전체 사회의 구조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체계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정의(justice)'이다. 시천주의 '섬김의 윤리', 특히 해월 최시형의 사인여천의 사회윤리는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구조적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 붕괴 현실, 즉 불의

55)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論學文」.

56)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김용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는 이 시천주 사상을 통해 이기심(各自爲心)에 빠진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의 참된 삶은, 본래 인간의 내면에 모셔져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한울을 나의 삶의 주체로 모시고 섬기는 것임을 밝혔다. 이것은 단지 외재적인 한울에게 의존하는 타력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신령성과 신명성(神明性)을 회복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길이다. 내면에 우주 생명을 모신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모심'과 '섬김'의 새로운 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이는 결국 '사회적 성화(聖化)'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64.

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인여천의 이념은 이미 역사적으로 1894년 3월 21일(포덕 35년) 갑오동학혁명에서 제기한 12개조의 군율, 12개조 폐정개혁안의 포고와 1904년(포덕 45년)의 갑진개화혁신운동, 그리고 1919년 3·1독립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동학의 사회윤리로 구체화 됐다. 이는 동학의 도는 지기일원론(至氣一元論)적 시천주의 진리로부터 해월 최시형의 용시용활(用時用活), 즉 ‘살아있는 도(道)란 그 때에 따라 생활 속에서 훌륭하게 적용되고 또 활용되어야 한다’는 법설을 거쳐 의암 손병희의 성신쌍전(性身雙全), 교정쌍전(敎政雙全)의 가르침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종교와 정치(사회)의 관계’ 즉 교정일치(敎政一致)는 1920년대 천도교의 사회운동을 확정짓는 용어였다.<sup>57)</sup>

동학 · 천도교의 종교적 목적, 포덕천하(布德天下),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천주 사상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윤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시천주의 인간의 윤리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와 책임, 섬김 그리고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윤리 혹은 정치윤리를 위한 대안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주체성을 확보한 시천주의 인간론은 사회적 평등사상으로 이어져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를 거쳐 1894년 갑오개혁에서 노비제 폐지와 반상간의 신분차별 폐지가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공헌하였다.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의식은 시대적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동학의 시천주의 인간론은 이에 관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이었다. 이는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와 자유주의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이론적 · 실천적 근거이다. 동학의 사회 평

57) 허수, 『이돈화 연구: 종교와 사회의 경계』 (서울: 역사비평사, 2012), 221.

등사상 속에서는 사회적 계급과 계층 간의 갈등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무정부적 혼란과 분열 역시 발견하기 힘들다. 즉 동학의 인간론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문제와 경제적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오늘날 제기되는 국민 국가와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한계<sup>58)</sup> 역시 극복할 수 있는 정치윤리의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시천주 사상은 해월에게 이르러 삼경사상(三敬思想)은 한울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물(敬物)<sup>59)</sup>에 까지 확장된다. 특히 해월의 ‘대인접물(待人接物)’, ‘물물천 사사천’의 철학과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실천이념은 오늘날 제기되는 생태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이다.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대상으로 인식하여 철저하게 유리했다. 그 결과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동학의 인간은 한울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을 모두 한 생명으로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생명윤리와 함

58) 캐나다에서 퀘벡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자끄 그랑메존(Jacques Grand'Maison)은 정의롭고 정당한 민족주의 형성을 위한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민족주의가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갱신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가? ②민족주의가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써 발전되었는가 아니면 상당 기간동안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는 소외를 유발하였는가? ③인간의 평등과 부의 재분배에 관심을 두는가? ④건전한 경제발전과 인간의 삶을 안정적인 상태로 도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⑤나라가 다른 문화들이나 전체 인류와 더욱 개선된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⑥소수 민족들에게 전체로서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⑦민주주의와 그 대표성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민족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집단들의 정당한 자율성을 인정하는가? ⑧이민자들에게도 평등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가? ⑨인간의 소명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와 맥락을 조성하면서 권위있는 진정한 통합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Gregory Baum, *Nationalism, Religion and Ethics* (Montreal and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107.

59) “셋째는 敬物이니 사람은 사람을恭敬함으로써 道德의 極致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物을 恭敬함에까지 이르러야 天地氣化의 德에 合一될 수 있나니라.” 『天道敎經典』, 358.

게 생태학적 평화체제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사회이념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동귀일체를 지향하는 사회, 후천개벽의 역사의식이야말로 양자의 불신과 갈등,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계를 화해시키고, 선천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후천의 평화로운 사회와 역사로의 이행을 시천주의 주체적인 인간이 추동할 수 있는 힘이고 가능성이다. 후천개벽의 시대에는 한울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모두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수운의 후천개벽은 시천주를 통해 유휴와 무위가, 사람과 하늘이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다시 개벽인 것이다. 후천개벽은 정신개벽을 통하여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이치가 드러나게 되면 무위자연, 무위이화의 천지개벽이 인위의 사회개벽과 돌아아님을 알게 되는<sup>60)</sup> 정신개벽, 사회개벽, 천지개벽의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역사를 의미한다. 또한 후천개벽은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한다. 갈등과 반목, 불신과 대립의 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정수복의 제안은 후천개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한다.<sup>61)</sup> 즉, 후천개벽의 사회 · 역사 이념은 계층 간, 집단 간의 사회적 ·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의 새 지평을 여는 변혁적 통합이념이다.

끝으로 동학 · 천도교 사회운동의 미래적 과제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동학 · 천도교 사회운동이 근대사회에 끼친 영향은 필설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갑오동학혁명은 당시 고질화된 총체적인 사회구조적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한 정의로운 투쟁이었으며 신분제 사회에서 일어난 인권운동

60) 최민자, 『동학사상과 신문명』, 128-9.

61) 정수복, 앞의 글, 522-32. 정수복은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에 대한 제언에서 '정치중심의 사회운동에서 문화중심의 사회운동으로의 전환할 것과 '사회운동의 윤리 도덕적 차원의 강화',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다.

이었다. 3·1독립운동과 그 정신은 훗날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건국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3·1 독립운동 이후에 전개한 것으로, 청년운동, 출판문화운동,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등 각 계층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문화운동은 우리사회의 근대화의 효시와 초석이 되었다. 그 영향력과 공헌을 종교적인 측면만을 평가해도 우리 근대사회에서 동학·천도교는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 최고의 종교였으며, 동시에 사회를 견인하는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하였음을 역사가 증명하며 우리 근대사는 동학·천도교를 배제하고 기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유감스럽게도 사회적·역사적인 측면에서 동학·천도교의 사회운동은 폄훼되고 저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동학·천도교 사회운동은 결과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실패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갑오동학혁명은 조선 정부와 일본에 의해 1차 좌절을 맞보았으며 3·1 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될 실패한 운동이었다. 3·1 독립운동 이후 천도교는 지속적으로 일제에 의한 감시와 탄압으로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 즉 근대화와 민족운동에 있어서 그리고 친일이라는 치욕을 경험하였다.<sup>62)</sup> 또한 해방 공간에서 통일운동의 전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천도교 청우당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1949년 12월 26일 「정당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리·해체되었다.<sup>63)</sup> 필자는 그 이유를 우리 근대 사회운동을 추동한 동학·천도교의 사회이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62) 포덕 56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83호에 의해 제정된 '포교규칙'은일본의 신도(神道)와 불교 및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국내의 천도교와 대종교 등 민족주의적 종교는 '종교유사단체'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 기독교 등 공인종교는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지도감독을 했지만 종교유사단체로 규정된 천도교 등은 여전히 '보안법'과 '집회취제'에 관한 건에 의하며 경무국(警務局)의 단속대상이 되었다.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앞의 글, 92-3.

63) 『충청매일』, 1949년 12월 27일.

첫째, 시천주의 인간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이상적이다. 인간을 전 일적인 존재로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각자위심이라는 ‘악’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다. 단지 불택선악(不擇善惡)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개인의 수심정기와 성경신의 수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적 역량만으로 사회적인 구조악을 개선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무모하고 무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의 악함과 사회 구조악을 현실적으로 다루기 위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of power)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구조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악, 집단이기주의(collective egoism)와 같은 불의를 개선하고 변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전략이 없다. 예컨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justice as fairness)에서 제시된 자유의 원칙(the liberty principle),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the fair equality of principle)과 같은 것이 없다. 따라서 동학·천도교의 사회이념에 개인적인 악과 사회적 구조악의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과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천개벽의 역사철학의 시간 및 시대 구분의 문제이다. 수운은 온 시간을 10만 년으로 인식했다. 동양<sup>64)</sup>에서는 10을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수’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10의 절반은 5이며 포덕 1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시절은 하원갑 5만 년이며, 오는 시절은 상원갑 5만

64) 소옹(邵雍, 邵康節)의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은 일원(一元)을 129,600년으로 잡아 온 시간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129,600년을 절반으로 나누어 하원과 상원으로 나누었다. 12(하루의 시간)와 30(한 달의 날짜)을 기본수로 하여 원회운세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원 즉 온 시간을 129,600년으로 잡고 그 절반인 64,800년을 하원갑, 상원갑이라 하였다.

년이 된다. '다시 개벽'이라는 뜻에는 하원갑과 상원갑이라는 대전환이 깔려 있다. '다시 개벽의 대전환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환이다. 지난 시절의 삶의 틀이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삶의 틀이 나타나는 대전환을 뜻하기 때문이다.<sup>65)</sup>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그것도 선적인 시간 이해가 아니라, 순환적인 사관인 만큼 선적인 시간 이해를 토대로 하는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과도 대화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동학·천도교의 사회이념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후천개벽에 대한 구체적인 매트릭스(matrix)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후천개벽의 이상이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면 극단적인 혁명을 추동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막연하다면 변혁에 대한 추진력을 상실할 것이다. 창조적 긴장을 통해 사회변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단계와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서양과 동양의 통섭하는 시간 이해가 요청된다.

## V. 결 론

필자가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동학·천도교의 사회이념은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하나의 가능성이다. 최근 종교와 신학의 새로운 흐름과 트렌드는 근대사회 이후 제기된 정교분리<sup>66)</sup>로 인해 개인화되고 사사화(私事化)되었던 종교

65)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앞의 글, 50.

66) 현대사회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는 '세속화(secularization)' 또는 '세속주의(secularism)'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속주의는 세속화의 이데올로기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한 신에 대한 개인과 세계의 독립이다. 세속주의는 간혹 정교분리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세속주의는 사회적 기구 및 관습들이 종교나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와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한 특정 종교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기독교와 가톨릭, 그리고 불교 등의 공통된 현상이다. 서구사회는 18세기 이후 시작된 정교분리 혹은 세속화, 세속주의가 이데올로기로 실험되었으며 정착 과정에 있다. 그러나 동학·천도교는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그 공공성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역사적으로 검증을 받았다. 수운 최재우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과 서도동기론(西道東器論) 논쟁에서 동도동기론(東道東器論)을 확정하면서 동학(東學), 즉 우리 학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천명하였다. 우리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 좌, 우익의 이데올로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갈등으로 인해 1953년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지금까지 60여 년 넘게 체제경쟁과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민족적 비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필자는 이제 양쪽의 이데올로기는 충분한 실험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우리 것이 아닌 서도, 즉 서양의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쪽의 이데올로기는 갈등과 분열, 폭력과 전쟁만을 생산할 뿐이다. 이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상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동학·천도교의 사회이념에 주목하였다. 한 사회를 변혁하고 통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보편성(universality), 둘째, 공공성(publicity), 셋째, 연대성

---

분리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믿음에 관한 것들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에 의한 종교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종교에 국가적인 특권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활동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기 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과 보편적 인권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속주의이다. 따라서 세속주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즉 정치에 의한 종교 간섭의 배제,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자체로 양날의 칼과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남태욱, “종교 편향과 차별 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 『불교평론』제10권 4호 통권 39 (2008. 겨울): 70-1.

(solidarity)이다. 동학 · 천도교의 사회이념은 창도될 당시부터 이미 보편성을 담지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현실적으로 절대다수의 민중을 설득하였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였다. 예컨대, 19세기 갑오동학혁명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이다. 그리고 동학 · 천도교의 사회이념은 이미 종지로부터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포덕천하(布德天下),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이나 행복에 안주할 수 없는 태생적 공공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창도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에 대한 변혁적 응답, 즉 공공성에 관한 요청에 기인한다. 끝으로 동학 · 천도교의 사회운동에서 엄두에 두어야 것은 동학 · 천도교는 보국안민의 차원에서 자신의 종교성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민중의 문화와 종교와 선입견과 편견 없이 연대하였다. 이제 우리사회와 국민, 더 나아가 세계시민사회의 공감대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학 · 천도교 사회이념을 현대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高宗實錄』.  
『東經大全』.  
『天道教經典』  
김경재.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종교적 영향”. 『동학연구』 제9·10집 (2001. 9), 31-52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서울: 책세상, 2007.  
———. “東學 神觀의 再檢討”, 『동학학보』 제9권 1호 (2005. 6), 331-364.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울, 2009.  
김정호. 『도전과 응전의 정치사상: 19세기 동아시아 3국의 개혁·개방 사상』.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5.  
金種範. 『解放前後의 朝鮮眞想』 第2輯. 서울: 三中堂, 1945.  
남태욱. “종교 편향과 차별 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 『불교평론』 제10권 4호 통권 39 (2008. 겨울), 68-87.  
동학학회 편저. 『동학, 운동인가 혁명인가』. 서울: 신서원, 2002  
문영석. “해월 최시형의 사상연구: 신관·인간관·자연관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3호. 2002, 329-363.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상권. 서울: 서문당, 1973.  
오문환 편저. 『한국의 사상가 10인 수운 최제우』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 10. 서울: 예문서원, 2005.  
오문환. 『사람이 하늘이다: 海月의 뜻과 사상』. 서울: 솔 출판사, 1996.  
오문환. 『다시개벽의 심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6.  
윤노빈. 『新生哲學』. 서울: 학민사, 2003.  
윤석산. “천도교의 수도법 수심정기에 관하여”. 『동학학보』 제7호(2004. 6), 95-118.  
이돈화. 『인내천요의』. 천도교중앙종리원포교과, 1924.  
———. 『天道教創建史』.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 『교정쌍정』. 평양천도교총학원, 1947. 10. 5.

- 李炳憲 編. 『三一運動秘史』. 서울: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義菴孫秉熙先生傳記』. 서울: 보성사, 1967.
-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 정영희. "동학의 인간평등사상 연구". 『동학학보』 제7호 (2004. 6), 177-207.
- 조병한. "태평천국의 역사적 의미". 『태평천국과 중국의 농민운동』. 서울: 인간사, 1981.
- 朝鮮總督府警務局. 『天道教概論』.
-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天道教青年會八十年史』. 서울: 글나무, 2000.
- 최민자. 『동학사상과 신문명』.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5.
- 최종성. "동학의 신학과 인간학". 『宗教研究』 第44輯 (2006년 가을), 115-126.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 사상·역사·논쟁의 세계로 초대』. 서울: 예문서원, 1995.
- 허수. 『이돈화 연구: 종교와 사회의 경계』. 서울: 역사비평사, 2012.
-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동학 · 천도교편』. 서울: 혜안, 1996.
- Baum, Gregory. *Nationalism, Religion and Ethics*. Montreal and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 Galtung, Johan., 이재봉.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 『평화연구』 제5호 (1996. 1), 187-202.
- 『개벽』. 12월호(1920).
- 『天道教青年會會報』. 제3호(1921. 12. 20).
- 『천도교회월보』. 12월호(1915).
- 『천도교회월보』. 10월호(1917).
- 『천도교회월보』. 10월호(1919).
- 『천도교회월보』. 12월호(1919).
- 『천도교회월보』. 4월호(1920).
- 『동아일보』 1920년 6월 2일.
- 『매일신보』. 1945년 11월 6일.
-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
- 『서울신문』. 1946년 1월 19일.
- 『세계일보』. 2014년 5월 2일.

『연합뉴스』. 2014년 5월 6일.

『연합뉴스』. 2014년 6월 18일.

『연합뉴스』. 2014년 6월 27일.

『중앙신문』. 1945년 12월 30일.

『충청매일』. 1949년 12월 27일.

『황성신문』. 1906년 2월 14일.

논문투고일: 2014. 06. 30.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 국 문 초 록 •
 

---

우리사회는 현존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변혁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이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 근대사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친 동학·천도교의 사회운동에서 나타난 사회이념의 타당성을 논증하여 우리사회의 변혁과 통합이념으로서의 가능성, 한계와 미래적 과제를 인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학·천도교의 사회운동은 우리 근대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중과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오동학혁명, 3·1독립운동, 신문화운동 등은 우리사회의 근대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역사적으로 결코 폄훼할 수 없다. 필자는 동학·천도교의 창도 목적, 포덕천하(布德天下),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등은 인간과 인간,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생명), 인종과 민족, 문화와 문명을 차별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전일적(全一的)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인류가 추구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는 보편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동학·천도교의 사회변혁 혹은 사회통합 이념이 인류 보편적인 이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학·천도교 사회운동을 역사적으로 개괄할 것이다. 둘째, 동학·천도교 사회운동을 사회윤리학적 관점으로 평가할 것이다. 셋째, 동학·천도교 사회운동을 추동한 사회이념을 규명 및 한정하고자 한다. 넷째, 동학·천도교 사회이념의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동학·천도교, 사회갈등, 사회변혁·사회통합, 사회운동·이념

---